

進明

中韓辭典

(改訂新版)

康憲鎮 南德鉉 編
李相度 張皓得



吉林教育出版社

進明

中韓辭典

(改訂新版)

康寔镇 南德铉 编
李相度 张皓得



黑龙江出版社
朝鲜民族

黑版贸审字 08—97—0059

图书在版编目(CIP)数据

進明中韓辭典/康寔镇等编.—3版.—牡丹江: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2001.5(2005.1重印)

ISBN 7-5389-0723-8

I.進... II.康... III.①朝鲜语—词典②词典—汉语、朝鲜语 IV.H556

中国版本图书馆 CIP 数据核字(2001)第 033399 号

本辞典根据韩国进明出版社
1997 年 1 月 10 日第 1 版第 3 次改订出版

书 名/ 進明中韓辭典(改订新版)

编 著 者/ 康寔镇 南德铉

李相度 张皓得

责任编辑/ 林承焕 李太福

责任校对/ 全明吉 崔京南 洪允善

封面设计/ 咸成镐

出版发行/ 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

印 刷/ 南京爱德印刷有限公司

开 本/ 787×1092 1/32

印 张/ 80

字 数/ 4860 千字

版 次/ 2003 年 12 月第 3 版

印 次/ 2005 年 1 月第 5 次印刷

印 数/ 19 001—29 000 册

书 号/ ISBN 7-5389-0723-8/Z·44(民文)

定 价/ 158.00 元

ISBN 7-5389-0723-8



9 787538 907230



(如印装质量有问题,请与本社发行部联系调换)

이 사전이 나오기까지

고난의 세월이었다. 컴퓨터가 이미 본격적으로 번거로운 일을 대신하던 10여 년 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한자 내지 중국어와 관련된 것이라면 전산화는 꿈조차 꿀 수 없는 처지였다. 중국, 중국대만에서 이룩한 전산화의 업적도 우리로서는 혜택을 받을 길이 전혀 없었고 따라서 이 분야의 개척 없이는 앞으로의 부끄럼 없이 낙후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국제 학계에 노출하는 부끄러운 상황이 지속되리라는 초조감을 떨칠 수 없었다. 12년 전 미국의 한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컴퓨터를 몰라 겪은 수모와 중국대만 골목마다 컴퓨터 가게가 성업을 하고 있는 때에 한 개의 글자를 찾기 위해 손가락으로 짚어 가며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원시 자료를 몇 달 동안 더듬거려던 마라지 교수라는 처량한 모습을 탈피해 보고자, 나라마다 컴퓨터가 다른 줄로만 알고 중국대만의 컴퓨터를 사들고 귀국하였다. 곧바로 컴퓨터는 똑 같다는 이치를 깨달았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한자를 입출력할 수 없다는 현실에 부딪혀 앞이 캄캄하였다. 이로부터 낯밤을 새우며 작업하고 관련 업체를 찾아다니며 기술자들에게 읍소하기 시작하였다. 중국, 중국대만 코드에 부여된 비트맵 폰트를 활용하여 8000자의 한자 코드를 만들어 쓸 수 있도록 하여 기초 자료를 입력하였으나 이것을 출력할 고품위 폰트는 아예 없었다. 우선 중국어 관련 자료를 입력하면서 한자의 입출력과 중국어와 관련된 폰트의 입출력 방법을 모색하면서 중국어 사전의 전산화에 착수하였다. 이러한 개발 과정은 무척 힘겨운 것이었다.

이 분야의 전산화를 위해서는 먼저 방대한 한자 코드를 만들어야 했다. 우리나라에서 쓰이고 있는 한자 코드를 모두 포괄하고도 중국, 중국대만, 일본의 한자까지 수용하여야만 앞으로 상호간의 데이터 교환에 무리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수만에 이르는 한자를 분석하고 맵핑하였다. 같은 글자의 각국 한자 코드를 찾아내어 맵핑한다는 것은 한자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수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수백 명의 부산 대학교 학생들을 동원하여 기초 작업을 한 다음 정밀 검사를 골백번 하였지만 여전히 오류는 발견되었다. 2년 남짓한 시간을 투입하여 한자 문화권의 한자를 모두 포괄하는 새로운 코드체계를 세웠고 이에 따라 중국, 중국대만에서 전산화한 많은 자료를 효율적으로 받아들이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것을 수용할 만한 훌륭한 입력기나 DTP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실용화할 수는 없었다.

한자의 입력이 한글이나 영문처럼 쉽지 않은 점은 이의 전산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이다. 한자로 문자 생활을 하는 중국이나 중국대만에서는 한자를 쉽게 입력하기 위한 방안이 지금까지 개인 혹은 회사 차원에서 600여 가지나 모색된 점만 보아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 전해 오는 순한문의 력사서나 고전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한자의 빠른 입력 방법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한글에서 한자로 전환하는 거북이 걸음을 답습하고 있던 때에 중국, 중국대만의 입력방법을 분석한 후 우리의 실정에 가장 적합한 방안을 모색하여 거듭된 실험과 시행착오를 하면서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고 몇몇 오퍼레이터를 연구실에 두고 적응 실험을 하였다. 어느 정도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있었으나 이 또한 실용화할 방안이 전혀 없었다.

중국어 교재나 사전 따위의 공구서를 전산 처리하는 데는 한어병음(漢語拼音)의 입력이 가장 어려운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중국인에게는 이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우리로서는 한자의 발음을 한어병음으로 입력하기란 여간 힘든 것이 아니다. 한어병음을 모두 기억하는 사람도 없거니와 원만한 입력 방법도 없으며 오퍼레이터가 입력했다 하더라도 상당한 오류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에 한어병음의 자동 입력 방안을 모색하여 소스화일이 만들어졌으나 이 또한 실용화할 방안이 없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위와 같은 성과들을 탑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내외의 회사를 찾아다니며 읍소하다 시피 부탁을 하였으나 돈벌이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없이 거절당하여 하는 수 없이 입력기를 개발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있던 차에 서울시스템(주)의 회장님인 李雄根 박사님께서 직원을 급파하여 우리의 염원을 수용하겠다는 남보를 보내 왔고 이로부터 일은 아주 쉽게 진행되었다. 우선 한자의 고속 입력법을 올려 실험하면서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1분당 100자 이상 입력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뿌리법」이라고 명칭하고 실용화하였으며 이 방법으로 사전이나 수많은

한자 문헌과 족보 등이 한글처럼 쉽게 입력되기 시작하였다.

동양 4개국의 한자를 모두 수용하고 나아가 자유자재로 데이터의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취지 하에서 서울시스템의 기존 한자코드와 한사연(韓史硏) 한자코드 등을 모두 비교 검토한 후 방대한 한자 부호 체계를 완성하기까지는 서울시스템의 金炫 박사와 이남희 씨가 지독히도 무뎌던 어느 해 여름방학을 꼬박 함께 지내야만 했다.

다국어(多國語) 한자 처리 시스템과 고속입력법을 탑재하고 한어병음 자동입력기를 올리는 바에야 아예 한자 사전(字典)까지 올려 모르는 글자의 정보에 대해 온라인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요구까지 모두 수용하여 서울시스템(주)의 윈도우즈 용 DTP인 PagePro에 탑재하는데는 부산에 내려와 반년을 함께 지낸 이명직 실장과 이미영 씨의 아낌없는 노력 덕분이었다.

그동안 내 월급의 고두만개 투입하며 이 일에 매달려 왔지만 사전 데이터를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정확한 중국, 중국대만의 한자 폰트는 고사하고 기존 하나 제대로 전산조판할 수 없어 수동 사칙을 하거나 중국의 인쇄물을 그대로 칼로 오려 붙이는 실정이 계속되었다. 이에 李雄根 박사님께서 저금을 흔쾌히 투자하여 서울시스템(주)의 폰트개발실 趙鎔周 박사와 함께 중국으로 가 수종의 중국 폰트 사용권을 북경대학으로부터 받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이 폰트들은 홍경순 씨를 비롯한 사체 개발 센터 및 사체실 직원의 노력으로 원만하게 진행되었다.

이러한 컴퓨터 환경 조정 작업을 어렵게 진행하는 사이 중국에서 어법 및 어휘학 분야에 소장 학파로서는 최고를 자랑하는 清華大學의 袁毓林 교수가 꼬박 1년 동안 어휘선정과 품사 분류 및 예문 선정 및 작성을 하였고 이러한 기초 위에 편집인들은 각종 항목과 석의 및 어법 설명 등을 하면서 교정 요원과 함께 때로는 대학의 아파트를 빌려 합숙하기도 하고 때로는 각자의 집에서 밤잠을 없애고 작업하기도 하였으며, 어느 해변 마을에 방한 칸을 빌려 무릎을 맞대고 쪼그리고 앉아 며칠 밤을 지새기도 하였다.

완벽한 전산화의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동안 편집인들이 입력한 데이터를 자동 조판하지 않고는 세계 최초로 5종의 중국 서체를 사용하고 3종의 한글 및 한국한자의 서체를 사용할 계획을 실현할 수는 없었다. 이에 대해서는 서울시스템(주)의 이미영 씨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김남희 씨가 조판을 하기 시작하였다.

여기까지의 작업을 진행시키는 데는 나의 전 월급이 투입되고 있었으나 진명출판사와 이루어진 당초의 출판 기일 약속을 지킬 수가 없었다. 그동안 지원된 경비를 이유로 진명출판사에서는 나의 월급까지 차압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이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전산화 데이터베이스로 찍어내어 출판하였던 폐기할 한 사전이 문제가 되어 검찰청에 끌려 다니는 신세가 되기도 하였다. 그동안 겪은 고통은 나를 자살 직전으로까지 몰아갔으나 마침 서울시스템의 李雄根 박사님을 비롯한 따뜻한 분들의 도움을 받아 용기를 얻고 이 사전을 내어놓게 된 것이다.

중국어는 단음절어이기 때문에 예로부터 사전(字典)이 주로 출판되었다. 글자 하나하나가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전만으로도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어체나 현대어에서는 당연히 다음절의 낱말이 절대 우위를 점하게 되고 이에 따라 현대적 의미의 사전이 출판되기 시작하였다. 중국에서 조기에 출판되었거나 중국대만에서 출판된 사전은 모두 변체자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중국의 문자 개혁 이후에는 거의 모든 사전이 간체자로 출판되었다. 그들이 한자의 자형을 통일하고 간화(簡化)한 것은 문자 생활의 편의성이라는 목적은 달성하였으나 낱말 한자의 변별력은 크게 떨어뜨렸다. 더구나 우리는 아직 간체자나 약자(略字)를 쓰지 않고 정자(正字)로 교육받고 써왔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은 중국과 달리 정자에 훨씬 익숙하다. 중국에서는 중국어를 간체자로 적고 있고 우리는 정자로 한자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양자의 현실을 가장 적절하게 수용할 수 있는 사전의 형태를 모색하기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리하여 이 사전에서는 정자의 골격을 가능한 한 유지하면서 간체자로 유도할 수 있도록 편집하였다.

그동안 외국에서 출판된 중국어 대역어 사전은 일본이 역시 우리보다 수십 년 앞서 있었다. 일본의 사전 제작에 대한 저력은 감탄을 지니 그들의 민중성까지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이다. 일본에는 작은 사전에서부터 방대한 사전에 이르기까지 또 간체자에서 번체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출판되어 있는 실정임에도 우리는 중국의 사전이나 심지어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편찬한 사전을 그대로 복사하여 사용하는 실정이었고 일본의 사전을 그대로 가져와 번역하여 출판하는 실정이었다. 중국어 대역어 사전은 대개가 중국의 商務印書館에서 출판한 《現代漢語詞

典》을 근간으로 하여 제작하는 추세였다. 이 사전은 중국에서도 현대 한어의 사전적 규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전은 어디까지나 중국인을 위한 것이었고 외국인이 중국어를 학습하거나 중국어 낱말을 검색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은 아니다. 이에 과감하게 《現代漢語詞典》의 영향을 벗어난 편집을 시도하였다. 우선 우리의 입장에서 필요한 낱말과 풀이를 하였고 중국인에게는 필요 없을 어법 설명을 대거 추가하였을 뿐 아니라 우리가 작문을 할 때 문법 체계 때문에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품사 분류를 다시 하였다. 중국어 사전 역사상 구별사(區別詞)와 상태사(狀態詞)를 나누어 표기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중국어를 배우는 인구가 늘어나고 배우는 목적도 다양하게 변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이 사전에서는 중국이 개방되면서 쏟아져 나온 신조어와 컴퓨터 용어나 무역 용어 등을 대거 보강하였을 뿐 아니라, 중국에서 시행하는 중국어 능력 점정 시험 기관인 HSK(漢語水平考試) 실행 기관에서 조사한 한자와 낱말의 사용 빈도수를 역시 최초로 표기하였다.

중국어를 배우는 것이 한자를 익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아직은 한자를 우리의 혼독으로 기억하거나 우리말에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자에 우리의 혼독을 달아 한자에 익숙하고 기억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자에 우리의 혼독을 달아 주었다.

이 사전을 편찬하는데 참여한 사람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직접 함께 작업한 인사들은 다음과 같다. 이들은 모두 학문을 위한 열정으로 무료 봉사하여 주었으니 이들 모두에게 모든 공을 돌리고 싶다. 함께 작업한 이들은 다음과 같다.

《이 사전 제작에 참여 하신 분》

DTP 제작: 서울시스템(주) 이명직 실장 이미영 허종기 이민석 유재석

한자코드: 서울시스템(주) 김현 박사 이남희 표준자

서 체: 조용주 박사 홍경순 김창윤 및 서체실 직원

조 판: 이미영 김남희 표준자

출 력: 유재석 유정목 이외의 기술부 및 출력실 직원

편 집: 강진진 남덕현 이상도 장호득

어휘선정: 袁毓林

품사분류: 袁毓林

예문발체 및 작성: 袁毓林

교 정:

- ① 김명구 나현미 박난미 오소연 조현주 지현희 황미리 황승연
- ② 김진정 김소정 노지연 류혜정 박서원 이소은 이현숙
- ③ 강경구 구희경 김난영 김민하 김영기 김일균 김정유 박노종 박서원 박은희 심우섭
전경영 정운성 정태업 제유미 조수연 최재수 표준자 하영삼

끝으로 이 사전에는 많은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오류는 다음 기회에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니 양해해 주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위대한 사전을 편찬했던 일본의 어느 학자는 사전 편찬을 끝내고 돌아가셨다고 한다. 우리 나라에서도 그러한 운명을 맞이하는 환경이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1996년 12월 11일 강식진 송

일 러 두 기

一. 각종 자형과 서체

① 이 사전에 쓰인 각종 중국어 서체는 북경대학(北京大學) 方正集團公司가 개발한 「国家标准 GB7590—87」 및 보충한자의 표준서체 중 송체(宋體)·방송체(仿宋體)·고딕체(黑體)·해서체(楷書體) 및 중국대만(中國臺灣)의 「Big-5」 코드에 부여된 번체자(繁體字) 송체(宋體)와 고딕체(黑體)로 중국어 사전에서는 세계 최초로 복합적으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완벽한 중국 서체를 한글과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된 **서울시스템(주)**이 개발한 최고의 전산 자식기 **PageStar3.0**에 동서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독점적인 라이선스 계약을 하였기 때문이다.

② 대표 표제자는 GB 코드의 송체(宋體)를 사용하였고 이의 번체자는 Big-5 코드의 송체를 () 속에 표기하였다. 이체자(異體字)나 속자(俗字) 등은 < > 속에 **서울시스템(주)**에서 개발한 명조체로 표기하였다.

보기:

【鰲(鰲)<鰲>】^{ao} 자라 오

③ 표제어는 GB 코드의 고딕체를 사용하여 돋보이게 하였고, 각종 예문은 방송체를 사용해서 미려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하였으며, 인용문이나 [] 속에는 해서체를 사용하여 확연히 구분되게 하였다. 한국어 속의 한자는 우리의 습관대로 명조체를 사용하였다.

二. 올림자(標題字)와 올림말(標題語)의 선정

1. 올림자의 선정

① 지금까지 출판된 중·소형 중국어 대역 사전의 표제어는 《现代汉语词典》(商务印书馆 1978년 12월 초판)과 《现代中国語辭典》(日本光生館 1986년 초판)을 기준으로 선정하는 추세였으나, 본사전은 급변한 근 10년간의 환경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 하에 과감히 이전의 사전을 참고하지 않고 독자적인 방법으로 선정하였다.

② 《汉语水平词汇与汉字等级大纲》(汉语水平考试(HSK)部, 北京语言学院出版社 1995년 第2版)에서 조사·통계·선정한 甲級 한자 800개·乙級 한자 804개·丙級 한자 590자 및 보충한자 11개·丁級 한자 670자와 보충한자 41개를 우선 선정하고, 올림말의 왼쪽 어께에 각기 그 급수를 보기와 같이 「1」 「2」 「3」 「4」로 표시하였다.

보기:

1【爱(愛)】^{ai} 사랑 애

③ 중국 정부에서 1987년에 제정한 「国家标准 GB7590—87」의 일급한자(一級漢字) 3,755자와 이급한자(二級漢字) 3,284자 중 한자의 부수나 편방용 한자 및 특수한 용도로 부여된 극소수의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호를 제외하고 모두 선정하였다.

④ 중국대만의 「電腦公會」(컴퓨터협회)에서 1988년에 제정한 「公會推薦中文內碼」(협회 추천 중국 문자 내부 코드)의 상용 한자(常用漢字) 5,401자 내에 있으면서도 위의 ①②항에 없는 글자는 극히 제한적으로 수록하였다.

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이 선정된 표제자를 어휘학 및 품사론의 중국 최고 권위자인 중국 清华大学 중문과 교수 袁毓林 박사에게 위임하여 적절성·실용성·합리성 등을 검증받아 총 6990자(字)의 표제자를 최종으로 확정하였다.

2. 올림말의 선정

① 올림말은 일차적으로 《汉语水平词汇与汉字等级大纲》에서 선정한 甲級 낱말 1033개·乙級 낱말 2018개·丙級 낱말 2202개·丁級 낱말 3569개를 취하여 왼쪽 어깨에 각기 그 급수를 보기와 같이「1」「2」「3」「4」로 표시하였다. 기타의 낱말은 장기 袁毓林 박사가 모두 18200여 낱말이 되도록 선정하였다.

보기:

1【爱人】āiàirén ① 勸 (사람을) 기쁘게 하다.

② 《现代汉语词表》(中国标准出版社 1984)를 비롯한 각종 낱말 조사표에 근거하여 일정한 준거에 따라 이 사전에 적당한 낱말을 선정하였다.

③ 최신어(最新語)는 중국의 베이징(北京)·타이베이(臺北)·상하이(上海)·홍콩(香港)에서 수집하였다.

④ 중국대만에서만 유행하고 있는 말도 수집하여(「㊸」)로 표시하였다.

⑤ 방언(方言)일지라도 그것이 보통화 속에 침투되어 표준음으로 발음하여도 의미를 가지는 것은 수록하고 그 방언의 출처를 밝혔다.

⑥ 낱말의 단위를 벗어난 어군(語群)일지라도 성어(成語)·속담·혈후어(歇後語)·관용어·속어 등은 적당하게 수록하였다.

⑦ 현대 한어 구어(口語)에서는 잘 쓰이지 않으나 서면어(書面語)로 쓰이는 고대 한어(古代漢語; 文言)와 근대 한어(近代漢語; 早期白話) 어휘는 적당한 수준으로 수록하였다.

三. 올림자와 올림말의 배열

1. 올림자

① 올림자는 한어병음(漢語拼音)의 자모순(字母順)·성조순(聲調順)으로 배열하였으며, 같은 성조 안에서는 한자의 획수순(劃數順)으로, 같은 획수 안에서는 부수순(部首順)으로 배열하였다. 다만, 시각적 효과를 위하여 한어병음과 성조가 같으면서 동일한 형성부(形聲部)를 가지고 있을 때는 그 형성부를 가진 첫째 글자의 뒤에 획수 및 부수순(部首順)으로 배열하였다.

보기:

1【八】bā 는 1【澳】ào 뒤에 (한어병음자모순)

1【八】bā 는 1【拔】bá 앞에 (성조순)

1【八】bā 는 4【巴】bā 앞에 (획수순)

4【巴】bā 뒤에 1【吧】bā 1【芭】bā 4【芭】bā 4【疤】bā 의 순으로 (동일 형성부의 획수 및 부수순)

② 자형(字形)은 같으나 자음(字音)과 자의(字義)가 다른 파음자(破音字)는 한 올림자의 자료를 그 올림자 밑에 집중시켜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표적 자음에 그 글자의 모든 음을 나열한 후, 각 음별로 풀이(釋義)하고, 파음에서는 대표음으로 가보도록 「ㄷ」로 표시하였다. 대표음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대만에서 출판된 각종 사전 및 운서(韻書)를 참고하여 결정하였다. 간혹 파음자가 아니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였다.

보기:

2【阿】ā ㄞ 언덕 아, 아침할 아

四. 접미사(後綴)의 표기

접미사「-儿」「-子」「-的」「-头」등은 해당 항목의 () 속에 표기하고, 올림말에는 「r」·「zi」 「·de」 「·tou」를 그 발음 뒤의 () 속에 표시하였다.

보기:

3【袄(襖)】ǎo 저고리오
(~儿, ~子) 図……

【矮个(儿, 子)】ǎigè(r·zi)……

【挨板(儿)】āibǎn(r)……

五. 표음(表音)

1. 표음의 일반 원칙

① 자음(字音)은 1985년 중화인민공화국의 「国家语言文字工作委员会」에서 공포한 《普通话异读词审音表》를 기준으로 한어병음자모로 표기하였으나, 여기에 없는 한자는 다른 자전이나 운서를 참고하였다.

② 중국대만 국어음(中國臺灣國語音)이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ㄷ)로 표시하였다.

보기:

2【闯(闖)】chuǎng 쏙내밀 틈, 엇볼 틈
①……⑤ (ㄷ chuǎng) 圖 (몸으로) 부딪치다.

③ 뜻의 변화 없는 단순한 우음(又音; 又語音)이나 구독음(舊讀音; 又讀音)은 「ㄗ」 「ㄨ」의 형식으로 밝히고, 우음이나 구독음에서는 정음(正音)으로 가보도록 「ㄗ」로 표시하였다.

4【癌】ái ㄗ yán) 암임

1【北】běi ㄷ bò) 북녜 북, 배반할 배

2. 경성(輕聲)의 표시 방법

① 다음과 같이 항상 경성으로 발음하는 것은 해당 병음자모 앞에 「·」으로 표시하였다.

㉑ 어기조사(語氣助詞): 了· le 啦· la 的· de 哪· na 呢· ne 啊· a 呀· ya 哇· wa 吧· ba 吗· ma

㉒ 동태조사(動態助詞): 着· zhe 了· le

㉓ 구조조사(結構助詞): 得· de

㉔ 접미사(後綴): 们· men 的· de 地· de 子· zi 儿· er 头· tou 么· me

㉕ 양사(量詞): 个· ge

㉖ 부사(副詞) (경우에 따라): 不· bu

㉗ 중첩에 의한 경성: 看看 kàn·kàn 哥哥 gē·gē

㉘ 형태소(詞素)로서의 경성: 衣裳 yī·shang 葡萄 pú·tao

보기:

【矮子】ǎi·zi

1【爸爸】bà·ba

② 일반적으로 경성으로 발음하지만 중음(重音)으로 강조할 때 등원래의 성조대로 발음할 수도 있는 경우에는 경성과 원래의 성조 기호를 함께 표시하였다.

보기:

3【口气】kǒu·qì

1【明天】míng·tiān

③ 경성으로 발음할 때와 자기의 성조대로 발음할 때 서로 의미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별개의 낱말이므로 동형(同形) 이음(異音) 이의(異義)자의 처리 방법에 따랐다.

3. 연음 변화(連音變化)와 변조(變調)

① 동화(同化)·이화(異化) 등의 연음 변화는 실제 발음상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표음에 반영하지 않았다.

② 제3성(上聲)의 변화 등 규칙적인 변조(變調; tone sandhi)는 법칙에 준거하여 발음하므로 원래의 성조대로 표기하였다.

보기:

²【总统】zǒngtǒng

③ 「一」「七」「八」「不」 등의 변조는 해당 올림자에서 설명하였다.

④ 변조에 의해 몸사가 바뀌는 등의 새 낱말이 파생된 경우나 불규칙적으로 변음(變音)하여 고정된 경우는 변한 성조나 음으로 표기하였다.

보기:

²【好好儿】hǎohǎoer

【阿家阿翁】ā jiā āwēng

4. 「儿化韵」

접미사(後綴)「-儿」은 자기의 음절「er」(실질 음가는 [ɤ])을 가지지 못하고 얼마간의 변화를 일으키면서 앞의 음절에 흡수된다. 이러한 현상을 「儿化」라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변화된 음은 표기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r」을 붙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래와 같이 발음하여야 한다.

① 「-a」 「-e」 「-o」 「-u」 다음에 「儿 er」이 오면 「-r」(실질 음가는 [ɤ])만 붙여 발음한다.

보기:

【法儿】fǎ + er → fǎr

【歌儿】gē + er → gēr

【错儿】cuò + er → cuòr

【股儿】gǔ + er → gǔr

② 「-i」 「-ü」 다음에 「儿 er」이 오면 「-er」(실질 음가는 [ɤ])로 발음한다.

보기:

【皮儿】pí + er → píer

【驴儿】lú + er → lúer

【鱼儿】yú + er → yúer

③ 「-ai」 「-an」 「-ei」 「-en」 다음에 「儿 er」이 오면 「-i」 「-n」을 없애고 「-r」을 붙여 발음한다.

보기:

【盖儿】gài + er → gār

【边儿】biān + er → biār

【味儿】wèi + er → wèr

【分儿】fēn + er → fēr

④ 「zhǐ」 「chǐ」 「shǐ」 「rǐ」 「zǐ」 「cǐ」 「sǐ」 「-ui」 「-in」 「-un」 「-ün」 다음에 「儿 er」이 오면 「-i」 「-n」을 없애고 「-er」로 발음한다.

보기:

【事儿】shì + er → shèr

【子儿】zǐ + er → zèr

【腿儿】tǔi + er → tūer

【信儿】xìn + er → xièr

【村儿】cūn + er → cūer

【裙儿】qún + er → qūer

⑤ 「-ang」 「-eng」 「-ong」 다음에 「儿 er」이 오면 「-ng」를 없애고 「-r」을 붙이고, 「-ing」은 「-ng」를 없애고 「-er」을 붙이되, 모두 비음화(鼻音化)하여 「-ar」 「-er」 「-or」 「-ier」로 발음한다.

보기:

【腔儿】qiāng + er → qiār

【灯儿】dēng + er → dēr

【空儿】kòng + er → kòr

【影儿】yǐng + er → yīer

5. 표음의 단위

① 올림말은 낱말을 기본 단위로 하여 표음하였다. 그러므로 복합어·속담·철후어·성어 등 여러 개의 낱말로 이루어진 말들이 올림말이 되었을 때는 낱말 단위로 띄어 썼다.

② 하나의 낱말일지라도 배에 따라 형태소(詞素)간에 분리되어 쓰이는 경우(이것을 「離字化」(이온화 현상)이라고 한다)에는 그 사이에 「/」를 넣었다.

보기:

²【爱护】àihù 勳……

【爱国者导弹】àiguózhě dǎo dàn 名組 ㉞…

【爱答不理】ài dǎ bù lǐ 威…

【爱国】àiguó 勳 나라를 사랑하다. 애국하다. Ⅱ 爱国是每个人都有自己的心情 | 나라를…

6. 격음(隔音)의 표기

한어병음 방안에 따라 「a」「o」「e」로 시작되는 음절이 앞 음절의 끝 자모와 연결되어 병음자모의 경계에 혼란을 일으킬 때는 「'」로 구분 지었다.

보기:

【第二】dì'èr

【名額】míng'é

7. 고유 명사의 표기

① 첫 자모를 대문자로 표기하였다.

② 고유 명사로서 띄어 쓸 때는 띄어 쓴 첫 음절의 자모를 대문자로 표기하였다.

③ 사람의 성과 이름은 띄어 썼다.

보기:

【汉城】Hàncéng 图(地) 서울…

³【毛泽东思想】Máo zédōng Sīxiǎng 名組

六. 한국 훈(訓)과 음(音)

① 올림자의 한국음이나 훈을 알기 위해 자전(字典)을 따로 찾아보는 수고를 덜어 주기 위해 한글음과 훈을 올림자에 병기하였다.

② 한국에 전래되지 않은 한자의 음은 각종 운서나 성운학적 원칙에 의해 그 음을 추정하여 () 속에 달아 두었고, 한국의 자전에 잘못 표기된 훈독은 운서를 근거로 지정 표기하였다.

보기:

【𪛗】ā (음역자아)

七. 풀이(釋義)

1. 올림자의 풀이

① 자형(字形)은 다르나 실제로 같이 쓰이는 올림자나 항목은 보편적으로 쓰는 올림자나 혹은 해당 항목에 가보도록 「→」로 표기하고 병합하여 풀이하였다.

보기:

【𪛗】á shà 목칠사

㉠ á 「啊」와 같음⇒〔啊 á〕

㉡ shà……

1【啊】ā á ǎ à 어조사 아

㉠ ā……

㉡ 啊 ①……=〔啊 á〕

② 의미나 용법 상의 차이로 인한 영역은 ①②③으로 구분하였으며, 다시 세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로 나누었다.

③ 올림자가 하나의 낱말로 쓰이는 자립형일 때는 하나의 낱말로 간주하여 품사를 밝히고 물이 하였다. 특히 문언(文言)·서면어(書面語)에서 하나의 낱말이 되는 경우에는 ㉠로 표시하고 품사를 밝혔다.

④ 올림자가 - 특히 현대 한어에서 - 독립적으로 하나의 낱말이 될 수 없는 의존형태소(不自由語素)일지라도 그것이 일정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의미를 위주로 하여 설명하였다.

⑤ 의미 없는 의존형태소로서 두 자 이상이 결합하여야만 낱말이 되는 올림자는 가장 관계가 깊은 올림말을 보도록 「㉠」로 표시하였다.

보기:

【暖(暖)】 à 히미할 애
①⇒〔暖暖〕②⇒〔暖昧〕

2. 올림말의 풀이

① 동형(同形) 이음(異音)의 이의(異義)의 올림말은 가장 앞의 올림말에 집중시켜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고, 뒤에 나오는 올림말은 앞의 올림말로 가보도록 「⇒」로 표시하였다.

② 의미나 용법 상의 차이로 인한 영역은 ①②③으로 구분하였으며, 다시 세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로 나누었다.

3. 동의어·반의어·참조어

① 동의어는 대표적인 올림자나 올림말의 식의의 맨 끝에 「=」로 표시하였으며, 해당 동의어가 올림말이 되었을 때는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풀이를 생략하고 대표 어휘로 가보도록 「⇒」로 표시하였다. 편벽하거나 번잡한 동의어 및 검색에 문제가 되지 않거나 쉽게 알 수 있는 동의어는 올림말로 세우지 않았다. 또 하나의 올림자 밑에 속하는 동의어가 올림말이 되었을 때는 그 풀이를 모두 생략했지만, 간단한 풀이로 대표 동의어와 항목을 찾아 검색해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는 동의어의 대표 동의어가 다른 올림자 밑에 있을 때는 그 어휘의 특성을 고려하여 풀이를 한 경우도 있다.

보기:

【爱司】àisī ⇒〔爱斯〕

【爱斯】àisī ㉠ 에이스(ace)=〔爱司〕〔好牌 pái〕〔A牌〕

② 반의어는 식의의 맨 끝에 「⇔」로 표시하였다.

보기:

1【矮】 ài 난쟁이 왜
① ㉠ (키가) 작다. ……⇔〔高〕→〔低〕 ②……

【矮秆作物】ǎigǎn zuòwù [名組]……⇔〔高秆 gān 作物〕

③ 의미 및 용법 등의 참조어는 「→」로 표시하였다.

보기:

【阿呆】ā dāi ㄘ 바보.→[京油子]

④ 통용자·공용자·동의어·반의어·참조어·주의 사항·어법 설명 등이 앞의 모든 항목에 해당됨을 나타낼 때는「||」로 표시하였다. 그러므로「||」표시가 없는 경우는 바로 앞의 항목에만 해당된다.

4. 용례(用例)

① 올림자나 올림말의 용례는 그 어휘의 문법적 특성을 보여줌과 동시에 표현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정선하였다.

② 올림자나 올림말의 용례는「II」로 표시하였고 용례 안에서의 올림자나 올림말은 글자수에 관계없이「~」로 표기하고 생각하였다. 중국어와 우리말 풀이 사이에는「|」로 구분하였다.

보기:

【阿爹】ā diē ㄘ ⑦ 아버지. II ~ 休 xiū 听这厮 sī 胡 hú 说| 아버지 이런 터무니없는.....

③ 올림자의 용례가 올림말에 있을 때는 풀이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로 표기하여 아래의 올림말을 보도록 하였다.

보기:

2【阿】ā à ē 언덕 아, 아침 할 아

ㄱ ā ① ② ① 외래어의 음역어(音譯語)에 쓰임. II ~ 米巴 ↓ II ~ 片 ↓

④ 어법 설명 등에서 틀린 용례는「(×)」로 표시하였고, 바른 용례를 보였다.

보기:

II 按期限完成(×) II 按着期完成(×).....

5. 생략·대체·보충 설명

① 풀이의 제한 설명이나 생략 가능한 말은「()」로 표시하고, 대체 가능한 말은「[]」로 표시하였다.

보기:

1【爱(愛)】ài 사랑 애

① ㄱ ㄴ 사랑(하다). ⑤ ㄴ (추위·더위를) 띤다.

【爱不释手】ài bù shì shǒu ㄴ 매우 아껴서[좋아해서]손을 떼지 못하다.

② 간단한 부연 설명이나 보충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식의 뒤에「|」로 표시하였다.

보기:

【吡啉】bǐ lín ㄴ ㄱ ㄴ (化) 아크리딘(acridine) [염료(染料)·살균제의 기본물질]

6. 주의 사항

자체(字體)·자형(字形) 등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주의」표시를 붙여 강조하였고, 필요한 경우에는 ㉠ ㉡ ㉢...로 항목을 나누었다.

7. 문법 설명 및 문법 용어

문법적인 설명은「어법」표시를 붙여 강조하였고, 필요한 경우에는 ㉠ ㉡ ㉢..., ㉣ ㉤...으로 항목을 나누었다. 문법 용어는「한국중국어학회」의「學校文法用語統一案」을 기준으로 이 책 뒤의 부록에 보인 것과 같은 체계로 사용하였으며, 많이 쓰이는 문법 용어는 다음과 같은 약호로 처리하였다.

중국어	한국어	약호	중국어	한국어	약호	중국어	한국어	약호
主语	주어	〔主語〕	名詞	명사	〔名〕	形容詞	형용사	〔形〕

謂語	술어	謂語	方位詞	방위사	狀態詞	상태사	狀
賓語	목적어	賓語	時間詞	시간사	區別詞	구별사	區
補語	보어	補語	處所詞	처소사	副詞	부사	副
定語	관형어	定語	代詞	대사	介詞	전치사	介
狀語	부사어	狀語	人稱代詞	인칭대사	連詞	접속사	連
名詞詞組	명사구	名組	指示代詞	지시대사	助詞	조사	助
動詞詞組	동사구	動組	疑問代詞	의문대사	動態助詞	동태조사	
形容詞詞組	형용사구	形組	數詞	수사	結構助詞	구조조사	
狀態詞詞組	상태사구	狀組	量詞	양사	語氣詞	어기사	語
副詞詞組	부사구	副組	動詞	동사	嘆詞	감탄사	嘆
介詞詞組	전치사구	介組	趨向動詞	방향동사	擬聲詞	의성사	擬
數量詞	수량사	數量	及物動詞	타동사			
前綴 詞頭	접두사	頭	不及物動詞	자동사			
後綴 詞尾	접미사	尾	能愿動詞 助動詞	조동사			

8. 품사(詞類)

품사는 올림자나 올림말이 낱말(詞)로 쓰이는 경우에만 밝혔다. 그러나 올림자가 형태소(詞素)로만 쓰이는 경우일지라도 일정한 의미를 지니고 일정한 한도 내에서라도 낱말의 역할을 하는 때는 품사를 밝혔으며, 고대 한어나 서면어에서의 품사는 「㉡」다음에 밝혔다. 품사의 표시는 문법용어의 약호로 나타내었다. 특히 구별사(區別詞)와 상태사(狀態詞)를 따로 떼어내어 표기한 것과 동사구(動詞句) 명사구(名詞句) 등을 표기한 것은 이 사전에서 처음 시도한 것이다.

9. 외래어의 처리

① 음역어·의역어·음의역어 및 음역과 의역의 합성 등 각종 외래어는 일괄적으로 ㉡ 로 표기하였다.

② 영어 이외의 외래어의 어원은 원어 뒤에 「;」을 쓰고 그 국명의 약어로 밝혔다. 어원 국명의 약어는 아래와 같다.

어원	약어	어원	약어	어원	약어	어원	약어
그리스어	;그	몽골어	;몽	이집트어	;에	프랑스어	;프
네덜란드어	;네	범어	;범	인도네시아어	;인	핀란드어	;핀
노르웨이어	;노	벨기에어	;벨	터키어	;터	헤브루어	;헤
독일어	;독	스페인어	;스	티베트어	;티	힌디어	;힌
라틴어	;라	아라비아어	;아	페르시아어	;페		
러시아어	;러	이탈리아어	;이	포르투갈어	;포		

10. 풀이에서의 중국어 및 인용문 표시

풀이 안에서 중국어를 그대로 써야 할 필요가 있을 때와 중국어나 한국어의 인용문은 「」와 「『』」로 표시하였다.

11. 풀이에서의 중국어 발음

풀이에 나오는 중국어에 어려운 글자가 있을 때는 그 글자의 옆에 한어병음을 달았다.

12. 방언(方言)

보통화로 발음하여도 의미가 가지는 방언의 출처는 아래와 같이 밝혔다.

方言區	次方言區	약호	方言區	次方言區	약호
方言		〔方〕	湘方言		〔湘〕
北京話		〔京〕	贛方言		〔贛〕
	北方方言	〔北〕	客方言		〔客〕

吳方言	西北方言	(西北)	粵方言	(粵)
	西南方言	(西南)	閩北方言	(閩北)
	江滙方言	(江)	閩南方言	(閩南)
		(吳)	台灣語	(台)

13. 올림자나 올림말의 시대별·어체별(語體別) 구분

올림자나 올림말이 시대별·어체별로 용법이나 식의가 다를 때는 다음의 약호로 표시하였다.

내 용	약호
文言體 古代漢語 古義	(舊)
近代漢語 早期白話	(近)
現代漢語白話體 口頭語	(口)

14. 올림자나 올림말의 용법은 다음의 약호로 표시하였다

내 용	약호	내 용	약호	내 용	약호
成語 熟語	(成)	公文 書翰用語	(札)	敬稱 敬語	(敬)
謙稱 謙遜語	(謙)	套語	(套)	諷刺語	(諷)
罵語	(罵)	婉辭	(婉)	比喻	(喻)
轉用	(轉)	略稱	(簡)	貶義	(貶)
俗談	(諺)	歇後語	(歇)	褒義	(褒)
俗語	(俗)				

15. 전문어는 다음의 약호로 나타내었다

분야	약호	분야	약호	분야	약호
建築	〈建〉	佛教	〈佛〉	醫學	〈醫〉
經濟 經營	〈經〉	商業 保險 會計	〈商〉	人名	〈人〉
考古學	〈考古〉	色名	〈色〉	印刷 出版	〈印出〉
工業 工學	〈工〉	生理學	〈生理〉	林業	〈林〉
鑛物 鑛業	〈鑛〉	生物學	〈生〉	電氣	〈電氣〉
交通	〈交〉	生化學	〈生化〉	電子	〈電子〉
教育	〈教〉	書名	〈書〉	政治	〈政〉
軍事	〈軍〉	水產 漁業	〈水〉	製紙 紙物	〈紙〉
機械	〈機〉	數學 算法	〈數〉	鳥類	〈鳥〉
氣象	〈氣〉	植物	〈植〉	宗教	〈宗〉
論理學	〈論〉	神名	〈神〉	中國藥學	〈漢藥〉
農業	〈農〉	心理學	〈心〉	中國醫學	〈漢醫〉
大衆傳達 매스컴	〈新放〉	冶金 金屬	〈金〉	地名 地理學	〈地〉
度量衡	〈度〉	藥物 藥學	〈藥〉	地質	〈地質〉
動物	〈動〉	魚類 貝類	〈魚貝〉	天文	〈天〉
牧畜	〈牧〉	言語學	〈言〉	哲學	〈哲〉
貿易	〈貿〉	歷史 史實	〈史〉	體育 스포츠	〈體〉
舞蹈	〈舞〉	演劇 映畫	〈演映〉	攝影 사진	〈撮〉

文學	〈文〉	染料 染色	〈染〉	蟲類	〈蟲〉
物理 理科	〈物〉	外交	〈外〉	測量 製圖	〈測〉
微生物	〈微〉	宇宙 航空	〈航〉	컴퓨터 電算	〈電算〉
美術	〈美〉	郵便 電信	〈通〉	土木	〈土〉
民族	〈民〉	原子力	〈原〉	貨幣	〈錢〉
紡織 纖維	〈紡〉	飲食物	〈食〉	化學 化合物	〈化〉
法律 法學	〈法〉	音樂	〈音〉	環境衛生	〈環〉

16. 응례의 출전

서면어·근대한어 등의 응례 출전을 밝힐 수 있는 것은 물이 뒤에 《 》로 밝혔으며 이 사전의 응례 출전은 다음과 같다.

《詩經》	《尙書》	《書經》	《周禮》
《周易》	《禮記》	《儀禮》	《孝經》
《爾雅》	《國語》	《穆天子傳》	《說文》
《玉篇》	《春秋·谷梁傳》	《春秋·公羊傳》	《春秋·左傳》
《呂氏春秋》	《戰國策》	《資治通鑑》	《六韜》
《史記》	《漢書》	《後漢書》	《三國志》
《魏志》	《晉書》	《北史》	《新唐書》
《宋書》	《商君書》	《老子》	《莊子》
《論語》	《孟子》	《中庸》	《荀子》
《墨子》	《列子》	《管子》	《淮南子》
《孫子》	《韓非子》	《郭子》	《楊雄·法言》
《鹽鐵論·水旱》	《陶宗儀·輟耕錄》	《王充·論衡》	《朱子語類》
《朱子全書》	《朱熹全集》	《法華經》	《諸葛亮·出師表》
《諸葛亮·後出師表》	《孔子家語》	《顏氏家訓》	《賈子新書》
《進學解》	《通俗編》	《文選》	《變文》
《花間集》	《楚辭》	《劉邦·大風歌》	《古詩十九首》
《張衡·東京賦》	《張衡·西京賦》	《司馬相如》	《木蘭辭》
《李白詩》	《杜甫詩》	《孟郊·登科後詩》	《春日懷李白詩》
《歐陽修》	《韓詩外傳》	《韓昌黎先生集》	《柳河東先生集》
《黃庭堅·仁亭》	《陸游詞》	《白居易》	《蘇軾詩》
《阮籍·詠懷詩》	《董解元·西廂記》	《劉知遠·諸宮調》	《散曲聊齋》
《王實甫·西廂記》	《元曲·倩女離魂》	《元曲·救風塵》	《元曲·兩世姻緣》
《元曲·魯齊郎》	《元曲·拜月亭》	《元曲·盆兒鬼》	《元曲·謝金吾》
《元曲·張天師》	《元曲·貶黃》	《元曲·馮玉蘭》	《元曲·合汗衫》
《元曲·蕭淑蘭》	《元典外·單刀會》	《元曲·滅慾循》	《長生殿》
《元雜劇》	《關漢卿》	《聘兒奴劇》	《曲波·林海雪原》
《小孫屠戲文》	《唐宋傳奇集》	《西遊記》	《金瓶梅》
《三國志演義》	《三國志平話》	《水滸傳》	《三俠五義》
《今古奇觀》	《紅樓夢》	《王嘉·拾遺記》	《石頭記》
《醒世恒言》	《世說新語》	《儒林外史》	《兒女英雄傳》
《幽明錄》	《西陽雜俎》	《隋唐嘉話》	《隋唐演義》
《京本通俗小說》	《警世通言》	《老殘遊記》	《鏡花緣》
《冥祥記》	《五代史平話》	《清異錄》	《清平山堂話本》
《初刻拍案驚奇》	《天才才子》	《官場現形記》	《老舍·駱駝祥子》
《老舍·龍鬚溝》	《老舍·四世同堂》	《矛盾·霜葉紅似二月花》	《魯迅·阿Q正傳》
《魯迅·狂人日記》	《魯迅·吶喊》	《謝冰心·寄小讀者》	《故鄉》
《梁斌·紅旗譜》	《艾蕪·百煉成鋼》	《海上花》	《紅燈》
《毛澤東語錄》			